

## 2011년 1분기 콘텐츠산업(상장사) 수출액

### □ 2011년 1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<sup>1)</sup>

<표> '10년 1분기~'11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0년					2011년	
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0년	1분기 (전기대비)	1분기 전년동기
게임	1,261.2 (-13.3%)	1,325.8 (5.1%)	1,391.2 (4.9%)	1,518.1 (9.1%)	5,496.3	2,272.9 (49.7%)	80.2%
인터넷포털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10.7 (15.9%)	22.1 (106.5%)	7.1 (-67.9%)	3.7 (-47.9%)	43.6	7.7 (108.1%)	-28.0%
방송	166.9 (-9.9%)	198.2 (18.8%)	563.3 (184.2%)	237.1 (-57.9%)	1,165.5	282.5 (19.1%)	69.3%
광고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49.2 (37.8%)	20.7 (-58.0%)	22.4 (8.4%)	31.2 (39.3%)	123.5	9.6 (-69.2%)	-80.5%
음악	154.1 (148.8%)	139.0 (-9.8%)	126.9 (-8.7%)	32.5 (-74.4%)	452.6	51.7 (59.1%)	-66.5%
애니/캐릭터	121.9 (-6.1%)	180.1 (47.7%)	213.7 (18.7%)	188.0 (-12.0%)	703.7	180.3 (-4.1%)	47.9%
합계	1,764.1 (-6.0%)	1,885.8 (6.9%)	2,324.6 (23.3%)	2,010.6 (-13.5%)	7,985.1	2,804.7 (39.5%)	59.0%

- 1) 게임 중 'CJ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
- 2) 인터넷포털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 제외
- 3) 출판 중 대교와 능률교육 사업보고서에서만 수출 발생
- 4) 방송, 영화 중 약 30% 업체만이 사업보고서 상에 수출액 명시
- 5) 광고 산업 중 대부분의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
- 6) 음악중 '엘넷미디어'는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 및 '소리바다미디어'는 '11년 5월 7일 상장폐지되어 분석에서 제외
- 7) 애니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 수출데이터 부재 및 '바른손'은 '11년 5월 30일 현재 실적보고서 미발표로 분석에서 제외

1)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 74개 선별 (게임(19), 인터넷포털(4), 출판(9), 방송(18), 광고(4), 영화(7), 음악(7), 애니메이션/캐릭터(6))  
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등록된 기업보고서

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중심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천 80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.0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39.5% 상승
  - '10년 3분기까지 상승세에서 4분기에 이르러 전분기대비 -13.5%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'11년 1분기에 이르러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
- 게임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천 2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.2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 49.7% 상승하여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성장을 주도
  - '11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81.0%로 '10년 4분기 수출액 비중 75.5%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며 '10년 3분기 이후 수출비중 상승
  - '11년 1분기 수출에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년동기대비 135.7%,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152.6%, NHN은 3,865.6% 성장하는 등 자금력 및 신작개발력이 높아 대내외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수출을 주도, 대형업체중 액토즈소프트는 3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'11년 1분기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-15.2% 감소해 하락세가 두드러짐
    - ※ 엔씨소프트는 '1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.1% 성장하여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은 수준
  - 중소형 업체 중에서 웹젠, 이스트소프트, 컴투스, 드래곤플라이, 바른손게임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'1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 부진상태를 보이고 있음
    - ※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는 국내의 스마트폰 등의 폭발적인 보급확대로 스마트폰용 게임 수요 증대 및 이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으로 큰 폭의 수출증대가 나타난.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0.5%(46.8%)<sup>2)</sup> 성장하여 '10년도에 이어 '11년에도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    - ※ '11년 1분기 게임 상장사들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.0%로 전년동기대비 9.5%p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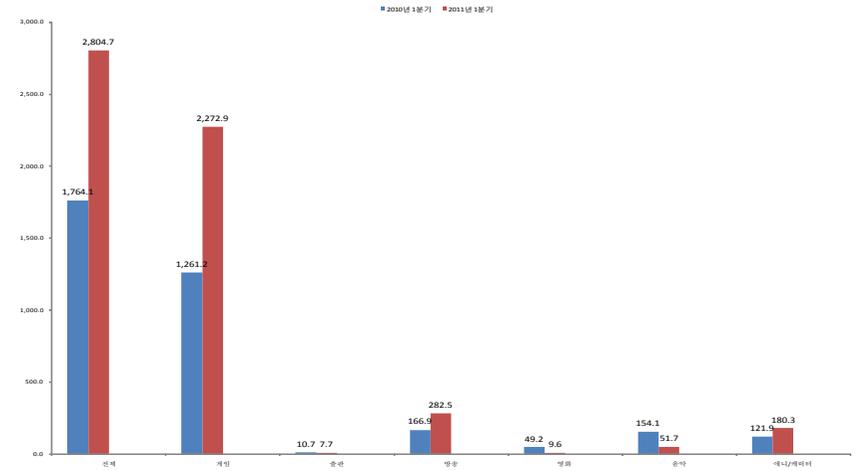
2) '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- 방송, 애니/캐릭터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82억 5천만원, 약 18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.3%, 47.9% 성장하여 '10년 4분기에 이어 고성장세
  - 출판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-28.0%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 108.1% 상승
    - ※ '11년 1분기 방송 및 애니/캐릭터 수출액 비중은 각각 10.1%, 6.4%이고 전년동기대비 -0.6%p 및 -0.5%p 하락
    - ※ 출판 '11년 1분기 수출액 비중은 0.3%로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-0.3%p 하락
  - 영화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-80.5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역시 -69.2%로 큰 폭으로 하락.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.3%로 전년동기대비 -2.5%p 하락
  - 음악 '11년 1분기 수출액은 약 51억 7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-66.5%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 59.1% 큰 폭을 상승

- 전분기대비 기준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수출증가율은 '10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다 '10년 4분기에 하락하다가 '11년 1분기에 이르러 상승세로 반전
  - 게임은 '10년 1분기에 계절적 비수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'10년 2분기, 3분기, 4분기 전분기대비 5.1%, 4.9%, 9.1%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'11년 1분기에는 49.7% 높은 상승을 기록
  - 출판 및 음악은 '10년 2분기 정점 이후 지속하락세를 보이다 '11년 1분기에는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. 전분기대비 108.1%, 59.1% 상승
  - 영화는 '10년 2분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 '10년 4분기에 약 31억 2천만원 수준에서 '11년 1분기에는 전분기대비 -69.2% 하락한 9억 6천만원 수준
  - 방송은 '10년 4분기 약 237억 1천만원 수준으로 하락하다가, '11년 1분기 전분기대비 19.1% 상승
  - 애니/캐릭터는 '10년 1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'10년 4분기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'11년 1분기는 전분기대비 -4.1% 하락
  - 음악은 '09년 이후 지속적인 등락을 보이다가 '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며 '11년 1분기에 이르러 전분기대비 59.1% 상승

<그림> '10년 1분기 vs '11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: 억원)



<그림> '10년 1분기 vs '11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: 억원, %)

